

파이프라인 기술협력 논의 '활발'

강스텝, 글로벌 제약사서 '러브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영향 아토피 피부염, 골관절염 치료제 기술이전 등 목표로 파트너십 계획

강스텝바이오테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협력 등의 논의가 이어져 후속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사는 컨퍼런스 동안 동종업계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시스템-에이디주'와 골관절염 치료제 '퓨어시스템-오에이 키트주'에 대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와 관련하여 1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유럽 제약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미팅을 확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10위권에 속하는 기업에서 치료제 기술 관련 자세한 설명 등을 요청하여 향후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파트너십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골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10여 개 나라에 연구개발 센터와 제조 사이트를 둔 제약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공동개발 기업이자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협업 중인

H사 및 글로벌 제약기업과 3자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한 추가미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스텝바이오테크 관계자는 "컨퍼런스 기간에 기술수출과 같은 빅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통해 여러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후속미팅까지 진행된다"며 "올해는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결과를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선 컨퍼런스 및 추가 미팅이 향후 좋은 소식으로 이어지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윤진호 교촌에프앤비 대표(오른쪽)와 황영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교촌에프앤비(주)

교촌에프앤비, 자립준비청년 새출발 응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금 2억

교촌에프앤비(주)가 2023년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준비예정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교촌은 1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준비예정자를 위한 후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원비, 교육비, 장비 구입비 등 자기계발을 위한 경제적 비용 지원에 활용된다.

먼저 후원 받은 2021년(1기), 2022년(2기) 자립준비청년들도 추가 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1

기, 2기, 3기가 자립 이후에도 서로를 지지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후원금 일부는 자립준비예정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향상과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위한 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쓰여질 예정이다.

자립준비예정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자립준비예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향상과 진로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교촌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세노바메이트', 청소년 뇌전증 3상 IND 제출

(임상시험계획서)

SK바이오팜, 유효성·안전성 평가 8개 국가서 연령층 확대 진행 예정

SK바이오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청소년 전신 발작 뇌전증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의 이번 임상 3상은 국내 청소년 전신 발작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일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이 있는 환자에 대한 세노바메이트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국내 임상 3상은 청소년 뇌전증 환자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세노바메이트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투약군과 위약군을 나누어 약 34주간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후 선택에 따라 오픈라벨로 약 1년까지 약을 투약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노바메이트 관련 전신 발작 적응증 및 투약 가능 연령층 확대(청소년~성인)를 위한 다국가 임상이 진행

되고 있다. 다국가 임상의 일환으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 호주, 독일, 스페인 등 약 8개 국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연령층을 확대해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국내 최초로 전 과정 독자 개발해 2019년 11월 미국 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시판허가 승인을 받은 성인 대상 부분 발작 뇌전증 혁신 신약이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는 북미,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4개 대륙으로 시장을 확대했다. 국내에서도 부분 발작 증상이 있는 성인 환자 대상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이세경 기자

난자 냉동보관 여성, 해동 난자로 임신

일산 차병원, 피에조 장비 최초 도입

결혼 전 난자를 냉동 보관한 40대 여성이 아기 임신에 성공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만혼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난자를 냉동 보관하는 '소설뱅킹'이 가 인기를 모으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 차병원 난임센터는 18일 결혼 전 냉동 보관한 42세 여성 A씨가 난자를 해동해 시험관 아기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지난 1998년 세계 최초로 난자 유리화 동결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A씨는 결혼 전인 2020년 일산 차병원 난임센터에서 난자를 보관했다. 내원 당시 39세였던 A씨는 난소 나이 지표인 AMH의 수치가 동일 연령 평균에 비하여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A씨의 난소 나이는 동일 나이군의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약 42세의 평균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당시 결혼 계획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AMH 수치가 낮아 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말에 향후 결혼과 출

산을 위해 2020년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

2022년 6월 결혼한 A씨는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아 당시 냉동 보관한 난자를 피에조 장비를 이용해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고 임신에 성공했다. A씨는 오는 7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병원측은 이번 임신 성공에 국내 최초 도입한 피에조(PIEZO) 장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일산 차병원 난임센터 한세열 센터장은 "피에조는 난자에 미세한 전기자극을 주어 일시적으로 난자가 활력을 갖게 하는 장비로, 난자의 질이 좋지 않거나 난자의 수가 적은 난임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차병원은 1998년 유리화난자동결법을 개발했고 1999년 유리화난자동결을 통해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

또 199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난자뱅킹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10년간 동결했던 난자를 해동해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에스트라'

저자극 결 케어 제품 선택

아모레퍼시픽의 메디 뷰티 브랜드 에스트라가 '에이시카365 수분 진정 결 토너'를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민감 피부를 위한 수분 진정 토너로, 화장솜으로 닦아내며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 결을 매끄럽게 정돈해 주는 저자극 결 케어 제품이다.

'에이시카365 수분 진정 결 토너'는 피부 결을 정돈해주는 'PHA3%' 성분에 시카를 더해 화장솜으로 인한 자극 없이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관리해 준다. 화장솜으로 닦아내듯 사용하는 이른바 '뉘트' 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피부 속 수분은 1.6배 더 촉촉하게 채워 준다.

민감한 피부를 위한 이번 신제품에는 피부 진정 특화 성분인 'CICA BPM TM'이 함유됐다. 제품 사용 직후 36%의 진정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GC녹십자 신약, FDA 희귀소아질환의약품 지정

바이오벤처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GC녹십자는 희귀의약품 전문 바이오벤처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산 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소아질환의약품 지정(RPDD)'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중추신경계에 헤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중추신경계의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어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 악화로 15세 전후에 사망하는 중증질환이다.

양사는 해당 질환에 대한 효소대체 요법 치료제(ERT)를 2020년부터 공동

개발 중이다. GC녹십자는 독자적인 재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로 우수 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에서 약물을 생산하고, 노벨파마가 비임상 연구를 진행한다. 이후 희귀의약품지정(ODD) 승인도 기대되는 만큼, 양사 공동으로 신속한 임상 진행을 통해 신약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RPDD로 지정 받으면 허가 신청 시 특례에 따라 향후 다른 의약품의 신약 허가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는 우선심사바우처(PRV)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이 바우처는 약 1억200만 달러(약 1259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세경 기자

KGC인삼공사 "비타민·미네랄 동시 충전"

'활기력 부스터 박스' 출시

KGC인삼공사가 6년근 홍삼에 12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활기력 부스터 박스' 카카오 선물하기 전용 제품을 출시했다.

기존 활기력에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의 비타민 B1, B2, B6, C, K, 엽산, 셀렌, 구리, 망간, 판토텐산, 아연, 나이아신 12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활기력 부스터 박스'는 멀티비타민 초소형 정제 기술을 도입했다. 초소형 정제란 첨가물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기능성 원료들을 정제해 기능성 함량의 비율을 높이면서도 묵념감이 좋도



정관장 '활기력 부스터 박스'

록 설계되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한달 워크데이를 기준으로 하루에 1병씩 총 20병으로 구성된 직장인들의 선물로 적합하다.

한편, 정관장은 '활기력 부스터 박스' 출시를 기념하여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24일까지 가격 혜택을 제공하고 선착순으로 제품 리부에 응모한 고객 중 '정관장 에브리타임 밸런스 토트넘 에디션 30포'를 증정한다. /이세경 기자